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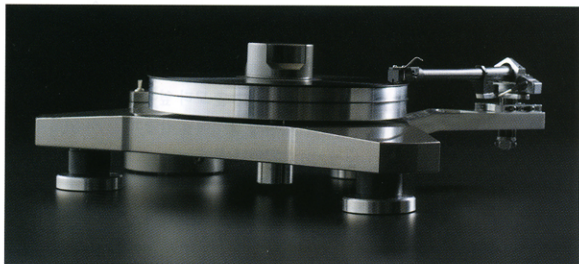
Baltic M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러우면서도 디테일한 묘사가 좋아서 쉽게 음악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음이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더욱더 이런 발틱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런 음색의 기타 반주와 편안하게 오버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흘러 나오는 김광석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매력을 느끼게 했다.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아날로그 황홀함 글 최윤옥

V.Y.G.E.R. 도대체 어떻게 발음해야 맞는 것인가? '보지, 아니지 바이저가 맞아' 한참을 헤매다 바이저라고 읽는다는 것을 알았다. 요즘에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의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발음부터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긴다. 사진에도 없는 'VYGER' 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SF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랙>과 관련이 있다. 1977년 미국에서 탐사를 목적으로 무인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보이저(VOYAGER) 호다. 이러한 사실적 바탕 위에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서 먼 미래에 이 보이저 호를 발견하게 된다는 설정을 하게 된다. 스타트랙에서 발견한 보이저 호는 'VOYAGER'에서 O와 A가 흐릿한 채로 발견되어 'VYGER'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VYGER'가 된다.

배달되어온 발틱(Baltic) M이라는 턴테이블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턴테이블이라는 것이 다른 아날로그 장비와 달리 디자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발틱의 베이스는 삼각형에서 뾰족한 부분을 잘라낸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디자인이 아주 심플할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의 도색 또한 아주 세련되어 보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준다. 이탈리아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역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누스 파베르, 페토스, 신세시스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나온 제품답다. 리부 제품은 청회색 계열인데 홈페이지에 소개된 붉은 자줏빛 색감의 제품은 이탈리아의 명차 페라리를 연상시킨다. 강렬한 느낌의 붉은 색인데도 전혀 조잡하거나 천박한 느낌을 주지 않는 깔끔한 색감이 아주 인상적이다. 특히 플래터의 윗면에 코팅된 검은색의 유기제질이 주는 색감은 디자인과 음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알루미늄 플래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역이 메마르고 고역에 독특한 착색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크릴이나 고무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군더더기가 되어버린다. 음질도 좋아야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함을 갖춰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플래터에 검은색의 유기제질을 매끄럽게 코팅을 하기로 한 것이리라. 미적인 감각

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LP의 레이블이 있는 중심부분은 빼고 소릿꼴이 있는 부분만 코팅 처리한 것이다. 보면 볼수록 미적 감각이 뛰어난 제작자라는 생각이 든다.

애호가라면 발틱이라는 미인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할 것이다.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리부어인지라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속을 살펴보았다. 발틱은 자기부상 방식의 플로팅 턴테이블이다. 3점을 받치는 발과 이 발이 끼워지는 베이스에 같은 극의 자석을 배치해서 베이스와 플래터를 공중에 띄워 놓게 된다. 플래터를 들어내보니 스피들 축을 받치는 축받이가 마찰이 적기로 유명한 테플론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테플론 축받이가 스피들 축보다 1-2mm 커서 플래터가 완벽하게 고정 안 되고 좌우로 건들거리는 유격이 있었다. 정말하기로 유명한 독일제 공작 기계로 제작되었다는 제품이라고 하기에



뭔가 의문이 남았

다. 딱 맞게 가공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제작자가

아주 교묘한 발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격이 있어서 플레터가 좌우로 건들건들 하지만 벨트로 모터의 풀리와 연결하면 플레터는 벨트의 장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고정되어 안정된 회전을 하게 된다. 플레터는 실제 주행 중에는 안정적인 회전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테플론 축받침은 유격 때문에 스피븐 축과 전체가 맞지 않고 모터 쪽 부분만 닿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 마찰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을 적게 발생시키게 된다. 약간 구조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플레터가 건들거리기는 마찬가지인 웰 템퍼드의 테네이블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구조는 세팅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베이스의 수평을 먼저 맞추지 말고 모터 풀리와 플레터 사이에 적당한 장력으로 벨트를 건 후에 플레터 위에 수평계를 놓고 수평을 잡아야 한다. 수평 조절은 3점지지의 발 아래 부분에 나사로 기둥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된다.

구동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대형 어댑터를 통해서 모터 전원에 직류를 공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구동 모터가 직류 모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터 자체는 교류 싱크로너스 모터가 맞다. 아니 직류를 공급 받는데 무슨 교류 싱크로너스 모터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모터 전원의 밀면을 보면 모터와 별도로 전원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어댑터로부터 직류를 공급 받아서 교류로 만들어 모터를 교류를 공급하게 된다. 33rpm과 45rpm의 속도 선택은 교류 주파수를 선택하는 토글 스위치로 하게 되어 있다. 속도의 미세 조정은 조그만 노브를 모터 옆에 두어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간단히 할 수 있게 했다. 린이나 토크스, 어쿠스틱 슬리드 등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다. 구동모터가 교류 싱크로너스 모터인 가지지만 모터의 품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이 확실했다. 정지 시에 손으로 돌려 보거나 회전 시 모터 전원에 손을 대보면 진동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스위스 제작 모터라고 되어 있었다.

톤암은 SME의 신형 톤암인 312가 장착되어 있었고 카트리지는 데논의 103R이 부착되어 필자에게 왔다. 312는 정밀성도 뛰어나지만 발틱 플레터의 검은색 유기재질과 색감에서 너무나 잘 어울렸다. 모하게도 데논의 103R도 바디가 블랙이어서 세 가지의 색상 매치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312 톤암과 103R 카트리지를 다 가격을 생각하면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플로팅 테네이블인지라 지역의 깊이와 무대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웨빙 연주의 스페인 교향곡을 걸었다. 1악장 도입부의 지역이 어떻게 재생

되는지 궁금했다. 예상대로 리지드 방식의 테네이블처럼 깊고 단단한 지역에는 약간 못 미쳤다. 무대의 크기는 광활하다는 느낌보다는 적당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무대 크기와 지역은 예상한 것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독주부의 바이올린이 나오면서부터는 지역과 무대 크기에 대한 생각을 잊어 버릴 수 있었다. 스피커를 빠져나온 바이올린 선율이 무대 중앙 약간 왼쪽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음상의 위치도 정확하고 음상의 크기도 적당했는데 무엇보다 음색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프로빙 테네이블의 장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기함급 테네이블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무대의 크기가 크지는 않았는데 앞·뒤 공간감 표현은 아주 탁월했다. 3차원의 홀로그래피를 훌륭하게 그려내 주었다.

중역에 적당히 살점이 있고 고역은 자연스럽게 위로 뻗어 있다. 초고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강렬함보다는 자연스러움에 무게를 둔 음이다. 이 부분은 데논 103R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금급에서 나중에 고에즈 우루시를 장착해서 시청을 했는데 역시 고역의 뻗는 해상력과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첫 음부터 확 잡아끄는 스타일의 음이라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러우면서도 디테일한 묘사가 좋아서 쉽게 음악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에 있는 음이다. 김광석의 '이동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더욱더 이런 발틱 M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런 음색의 기타 반주와 편안하게 오버하지 않으면서 답답하게 흘러나오는 김광석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매력에 느껴지게 했다.

아날로그의 부활로 기천만원에서 역대 최고의 기함급 테네이블이 출시되면서 아날로그의 극한을 보여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거대한 기함급 테네이블이 있어야만 아날로그의 황홀한 소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틱이면서 아날로그 진면목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고 조각품을 보는 듯한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A**